

# 9월 소비자물가 3.9% ↑ ...고유가에 5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 광주·전남 두달 연속 3%대 오름세...광주 과실류 급등에 농산물 7.6% ↑ 수확기 맞아 농산물 가격 점차 안정...10월 물가상승률 둔화 3% 내외 예상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유가가 강세를 보인 면서 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광주 113.1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3.9% 올랐다. 전남은 113.68로 전년 같은 달 보다 3.6% 상승했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 8월 각각 3.5%와 3.0%로 3%대에 올라섰으며, 지난 4월(광주 3.9%, 전남 3.5%)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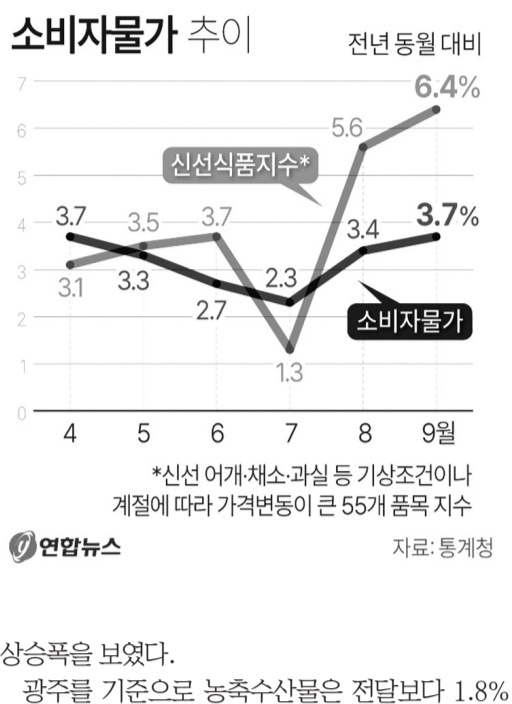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에는 국제유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류값 하락 폭이 9월에는 4.9%에 그쳤다. 지난 7월 -25.9%, 8월 -11.0%에 이어 한 자릿수로 석유류값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역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밀어 올린 셈이다.

석유류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7월 -1.49%포인트에서 8월 -0.57%포인트, 9월 -0.25%포인트로 둔화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가격의 하락 폭이 둔화했다"며 "국제유가에 따라 앞으로 (물가 흐름이)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 상승폭도 컸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난데다 폭염 등 계절·기상 여건으로 큰



포인트 오른 3.7%를 기록했다.

특히 농산물이 7.6% 오르며 작년 10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과(58.6%), 토마토(50.2%), 복숭아(28.5%) 등 과실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여름철 폭염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춧가루(21.3%), 쌀(11.3%)도 고공행진을 보였다. 축산물은 1.6% 내리고, 수산물은 2.4%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과실류의 상승 폭이 컸는데, 사과나 복숭아를 보면 생육 초기에 여름철 기상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생산량이나 출하량이 감소했다"며 "일부 수입 과일의 수입량 감소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광주가 작년 동월 대비 18.4%, 전남은 18.0% 상승했다.

외식비도 5.3%(광주) 올라 비교적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기상 여건에 따른 일부 농산물값 상승 등의 영향이 반영됐다"며 "국제유가 상승분은 시차를 두고 반영되겠지만, 수확기를 맞아 농산물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계절적 요인들이 완화되는 10월부터 물가 흐름이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10월부터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연말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8%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3% 올랐다.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된 체감물가가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4.4% 상승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 제철 수산물 안심하고 맛보세요"

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에 마련된 제6회 어식백세 전남 제철 수산물직거래 장터를 찾은 시민들이 전복구이를 맛보고 있다. 수협 전남본부가 마련한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는 오는 7일까지 지역 특산물 할인판매와 함께 산지 제철수산물 무료 시식이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

## 아이들 우윳값 이어 어른들 술값도 오른다

### 식품·주류 제품 도미노 인상 우려 아이스크림 가격 줄인상 이어져

우윳값에 이어 맥주값까지 오르면서 식품 가격 도미노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로 원재료를 수입하는 이들 식품·주류·음료 업체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전남 오비맥주는 오는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다고 밝혔다.

오비맥주의 국산 맥주 가격 인상은 작년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오비맥주는 올해 3월 버드와이저, 코로나 등 수입 맥주 가격을 올리면서도 국산 맥주 가격은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오비맥주는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카스 500ml 캔 제품의 경우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오비맥주의 가격 인상 이후 다른 주류 업체도 제품 출고가를 일제히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작년에도 오비맥주가 국산 맥주 가격을 인상하자 하이트진로도 테라, 하이트 등의 맥주 제품 가격을 올렸다.

특히 업계는 지난 4월의 경우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평균 9.8% 올랐으나 소주 제품 가격은 동태에 각 주류업체의 원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류업체들은 그러나 일단 당장 가격 인상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맥주값 인상과 별개로 이달 1일부터는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유제품 가격이 올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게 됐다.

유업계와 낙농가 관계자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앞서 원유 가격 인상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흰 우유 제품 가격은 편의점에선 900ml 기준으로 3000원을 넘게 됐다.

식품업계 안팎에선 우윳값 상승에 따라 우유를 원료로 쓰는 아이스크림, 빵 등의 가격이 잇달아 오를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 빙그레와 헤태아이스크림은 오는 6일부터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채널별로 순차적으로 올린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골레도르 바'를 300원 올리고, '투게더'는 8.3% 인상한다.

헤태아이스크림은 마루 브랜드 미니컵과 흠집 4종, 쿠키마루 파르페 등을 각각 500원씩 올린다.

지난해의 경우 우윳값 인상 이후 빵, 아이스크림 가격이 각각 6%대, 20%대로 올랐다.

이에 더해 고유가와 고회환율도 식품 물가 상승을 촉발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물류비 등이 늘면 업계의 생산비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또 국내 기업들이 원부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은닉재산 신고 건수 10년간 5000건...포상금 100억원 육박

추징 세액 725억800만원

은닉재산 신고 건수가 최근 10년간 5000건, 포상금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 건은 최근 10년(2013~2022년) 간 4490건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 건수는 518건으로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건수를 넘어섰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은닉재산 신고로 추징된 세액은 725억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추징세액은 49억원이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고의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자 재산자 또는 친인척 명의로 숨긴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의미한다.

또 이 기간 누적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90억 50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금액(9억원)까지 더하면 100억원에 육박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800만원에서 2014년 2

억2600만원을 기록하던 2017년 13억 6500만원에 달했다. 이후 2020년 12억600만원→2021년 14억2300만원→2022년 14억77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지급액만 9억원에 달했다.

서 의원은 "포상금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신고가 활성화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의적 재산은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고액 상속재난자들이 줄어들고, 이들에 대한 국정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복권기금 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적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